

2·8독립선언, 광주·전남 출신 유학생이 주도

정광호·김현준, 도쿄서 첫 주장...독립선언서 국내 반입 거사 요청
최원순·이이규 국내 수시로 오가며 독립 강연 등 3·1운동 촉발 앞장
내일 2·8독립선언 100주년...지역 출신 유학생 재조명 목소리 높아

광주·전남 출신 유학생들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일본 도쿄 2·8독립선언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이들의 행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와 광주시사(光州市史) 등에 따르면 2·8독립선언은 광주·전남 출신 유학생들이 처음 주장하고 나섰다. 1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둔 1918년 1월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한다. 같은 해 12월 열린 파리 평화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14개 원칙이 확정된다.

국내보다 세계 정세에 빨랐던 동경 유학생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한달 뒤인 1919년 1월 6일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웅변회를 열고 독립운동을 결의했다. 당시 조선유학생 학우회 소속 광주 출신 정광호와 나주 출신 김현준이 2·8독립선언을 제일 먼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비롯한 최원순·이이규 등 광주·전남 출신 유학생들은 이전부터 한국을 수시로 오가며 독립에 대한 강연을 펼쳐왔다. 당시 송계백·최팔용·서준·이광수 등 실행위원 11명은 비밀결사인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해 2·8독립선언을 은밀히 추진

했다. "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국의 전에 독립을 성취하기를 선언하노라(당시 원문)"로 시작하는 독립선언서의 초안은 이광수가 작성했다. 거사 당일 YMCA 건물에 모인 유학생 600여 명의 환호 속에 독립선언서가 발표됐다. 정광호는 앞서 이 독립선언서를 국내로 가지고 와 서울에서 최남선 등을 찾아 도쿄 2·8 선언과 때를 같이 해 국내에서도 거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정광호는 서울에서 유학 중이던 광주 출신 박일규·최정두·김범수 등을 만나 광주에서만이라도 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후 송계백은 최남선을 다시 만나 3·1 독립선언서 작성을 요청했고, 담양 출신

송진우를 만나 국내 3·1운동을 계획했다. 수피아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김마리아는 송계백을 통해 독립 자금을 유학생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2·8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8일까지 서울과 도쿄에서 기념식을 동시에 개최한다. 8일 오전 11시 도쿄 재일본한국 YMCA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애국지사 유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2·8독립선언 노래 공연,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시각 서울 YMCA에서도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설 연휴 단수·단전 광주 시민들 불편 광주시 상수도본부·한전 사전 통보도 없어 분통

설 연휴 첫날부터 광주도심 일부에서 수도물 공급이 중단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단수·단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피해 시민들은 "단수·단전 사실이나 원인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광주시와 한전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6일 광주시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죽곡경로당 옆 상수관 일부가 파열돼 누수가 되는 사고가 발생해 5시간여만에 복구됐다. 설 명절 준비가 한창이던 석곡동 주민들은 갑자기 수도물이 끊기자, 동파사고 등으로 알고 가정내 수도관 점검에 나서는데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측은 단수 이후 2시간이 넘어서야 차량과 마을방송 등으로 단수 사실을 통보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한 주민은 "단수에 대한 통보가 없어 동파사고인 줄 알고 오전 내내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녹이고, 점검하느라 전땀을 뻘뻘"이라며 "수도관이 연결된 이후엔

수일째 수도물이 하얀 쌀뜨물처럼 뿌옇게 나와 문의했더니, '공사 후 공기압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듯하다. 녹물만 아니면 괜찮다'는 등 이해하기 힘든 답변만 늘어놓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상수도본부 관계자는 "통장 등을 통해 단수사실을 미리 알렸어야 하는데, 설 연휴기간인 탓에 보수팀은 물론 여러 부서까지 대체 근무를 하면서 관련 대처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오후 1시 45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주변 아파트 등이 200여세대가 30분 가까이 정전됐다. 피해 주민들은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도, 왜 정전이 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면서 "명절 연휴에 가족이 모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조류가 변압기에 동지를 틀어 전선 단락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다"면서 "안전관리자가 있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10여분만에 복구됐으며, 나머지 건물은 30여분 만에 복구가 완료됐다"고 답변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고3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부모 2심도 실행 징역 1년6개월씩 선고

고3 전 과목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입부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여·5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유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 자리 등에서 B씨에게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빼냈다. B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재장리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아들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 B씨의 요청으로 범행이 시작돼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두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교법인 측에서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B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장애인특수학교에 상당액을 기부한 점, 동종 범죄 양형 균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중가족 합동세배 6일 오후 광주YMCA에서 열린 2019민중가족 합동세배에 참석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원로 등이 맞절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돈 뿌리고 출자금 대신 납부해 주고... 광주·전남 조합장선거 과열·혼탁 양상

불법행위 25건 적발
#1. 전남 모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13명에게 각각 7~10만원씩 출자금 총 127만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지지를 부탁한 A씨와 A씨 대신 출자금을 제공한 B씨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2. 광주 광산구 모 조합장 선거 이후보

제한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전남에서는 총 2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7건이 검찰에 고발됐고 1건은 수사의뢰, 18건은 경고 조치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 때보다 배가 많은 총 4건을 고발했고, 전남선관위는 총 21건을 적발해 3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했다. 특히 전남선관위는 조합원 등록에 필요한 출자금을 대신 낸 A씨 사례를 전국 최초로 적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택 기자 kroh@kwangju.co.kr

뺨소니 사망·살인...설 연휴 사건·사고 얼룩

설 연휴 기간 광주·전남·북은 교통사고, 화재, 살인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음주 뺨소니 사망사고를 저지른 해군 하사 A(21)씨가 경찰에 붙잡혀 군 헌병대로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다. A씨는 이날 밤 목포시 영산강 하구둑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차량고장으로 갓길에 서있던 B(26)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로 숨진 B씨는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 강진으로 가던 길이었다. 같은날 밤 9시 19분께에는 전북 임실군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 모두 숨졌다. 화재사고도 이어졌다. 4일 오후 1시께 광주시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베

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던 60대가 떨어져 숨졌다. 앞서 3일에는 광주시 동구 한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전북에선 가죽단 다름골에 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군산경찰은 6일 자택에서 아내(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C(54)씨를 붙잡았다. C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가 돈도 못 벌었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고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2일에는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D씨가 붙잡혔다. 최근 중국 국적 여성과 혼인신고한 한 D씨는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며 뺨을 때리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몸보신 하려고"...전기배터리로 물고기 수백마리 잡은 태국인들

상대방 ○...전남의 한 하천에서 "몸보신을 하겠다"며 전기배터리를 이용해 물고기 수백마리를 잡은 태국인들이 경찰서행. ○...6일 합평경찰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인 태국인 7명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합평군 엄다면 합평천에서 전기배터리를 이용해 붕어·잉어 등 물고기 123

kg를 불법으로 잡았으며,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명은 붙잡히고 나머지 4명은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도망간 4명에 대해선 불법체류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추적중인데, 붙잡힌 3명은 경찰조사에서 "타국에서 설 명절을 맞아 몸보신을 하려고 물고기를 잡았다"며 선처를 호소.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의: 430-8801